

## 식도암, 여자보다 남자 발병률 10배 높아

우리 몸에 생기는 질환 중 식도암처럼 고약한 병은 없다. 식도는 위나 대장과는 달리 장간막에 싸여 있지 않아 암조직이 주위 조직으로 쉽게 퍼지기 때문이다. 또 주변에는 임파선이 발달해 있어 주위 장기로의 전이가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발견됐을 때는 암이 상당히 퍼져 있어 손대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주위에 심장·대동맥 등이 있어 이들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되면 대부분 떼어내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느 암에 비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 ◆원 인

식도암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담배, 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담배는 편평상피세포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술도 중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다. 특히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식도 점막에 장기간에 걸쳐 물리적·화학적 자극이 가해지면서 암을 유발한다. 그리고 양젓물 등의 독극물을 먹으면 식도의 협착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후일 식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 ◆발생빈도

식도암은 민족 및 지역에 따라 발생빈도가 다르다. 이란의 카스피해에서 중국 북부 허난성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식도암 발생빈도가 세계의 다른 곳보다 20~30배 높아 아시아 식도암 지대로 불린다. 이 지역 사람들이 식도암이 많은 것은 늘 즐기는 뜨거운 차, 씹는 담배 등이 식도를 자극해 식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의 경우 암 발생순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과거 양젓물을 잘못 먹어 부식성 식도염이 있었던 사람, 과음하는 사람에서 식도암의 발생빈도가 높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도암은 남자가 여자보다 10배 이상 많다.

### ◆증 상

식도암은 식도 안을 뺨 돌아가며 자라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된밥이 안 넘어가다 점차 죽, 미음, 물까지도 삼키기 어려워진다. 환자는 1~2개월 안에 심한 체중감소, 빈혈 등이 나타난다.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으며 빨리 삼키려면 사래가 자주 들리거나 음식이 걸리는 것 같다. 또 목구멍 주변에 경련이 자주 일어나며 갑자기 체중감소가 심해진다.

### ◆진단과 치료

식도암은 내시경검사나 방사선검사로 쉽게 진단해 낼 수 있다. 특히 내시경검사는 초기에도 그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찾아낼 수 있고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도암 진단 후 병변의 위치, 전이정도,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식도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세가 없어 식도암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증상이 나타나면 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율도 수술 5년 후 생존율이 10% 미

만으로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식도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외과·방사선·화학요법(항암제 치료)이 있다. 이 밖에 온열요법이나 면역요법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외과수술이 식도암 치료의 핵심으로 절제한 식도를 대신해서 음식을 보내 줄 새로운 통로를 재건하는 식도재건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외과요법과 방사선요법, 화학요법을 조합해 복합치료를 실시한다.

◆예 방

흡연과 과음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식도암 뿐 아니라 구강, 인후, 후두암의 가능성을 줄여 준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과음하면 일반인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100배 이상 높아 반드시 금연과 절주를 해야 한다. 또한 맵고 뜨겁고 신 음식도 식도암 발병을 높이는 요인으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유방X선촬영, 20~30대는 ‘득보다 실’

유방암 증상이 없는 20, 30대 여성이 유방암 검진을 위해 매년 유방촬영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조기암검진사업단 위원인 김미혜(金美慧) 유클리닉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방사선학회에서 가톨릭대와 순천향대 의대 예방의학교실팀과 공동연구한 결과 20, 30대 여성이 매년 유방을 촬영하면 방사선이 축적돼 10만명당 13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 원장은 “특수방사선을 이용하는 유방촬영은 일반적인 흉부 X선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20배나 많고 방사선이 분산되지 않고 유방에 집중돼 축적된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20대부터 매년 유방을 촬영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40대 이상 여성은 방사선에 덜 민감하고 유방촬영술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할 확률이 높아 10만명당 31~38명을 유방암으로 인한사망에서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6년부터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사업에 따라 직장보험 가입 여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면 비용의 50%를 내고 유방촬영을 할 수 있다. 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유방검진을 받은 여성 가운데 60% 이상이 20, 30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들은 국내 39세 이하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23%로 미국의 4배에 달하므로 방사선 축적을 우려해 유방촬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은경(金恩卿) 교수는 “젊은 여성이 매년 유방을 촬영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한두번 정도 받는 것은 해롭지 않다”며 “특히 40세 이상 여성은 1, 2년마다 꼭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양정현(梁精鉉) 진료부원장은 “방사선의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젊은 여성은 유방의 조직이 치밀해 유방촬영을 해도 조기 발견이 힘들다”라고 말했다.